

# 설날 가정 예배

인도자(가정의 가장 혹은 신앙의 세대주)

◎ 개 식 사 ..... 말 은 이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명절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신앙고백 ..... 다 같 이

◎ 찬 송 ..... 559장 ..... 다 같 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 공동기도 .....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예수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선대하여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집안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사업과 일터를 살피주시며,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를 인도하사 주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이사야44:1-8 ..... 말 은 이

“1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3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5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6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이다 8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 말 씀 ..... 설날 우리가정은 이렇게 살자! ..... 설 교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더 가까이 하라(이사야44:1-8)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박식하고, 학위가 있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능력

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설정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 이전에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바로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생활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머리로만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참새 한 마리도 임의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론아”라고 한 것은 우리 자신을 두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46:3~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중에서 이미 아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등에 업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태중에서 알고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업고 계시며, 우리가 노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품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1:5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이 본문 3~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메마른 우리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그 삶이 푸르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 분은 세상 종교 창시자와 동일한 분이 아닙니다. 6절 말씀처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을 결코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게 되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이론적 믿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는 실제적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서

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모든 주권,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결론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 성공하십시오. 하나님께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소홀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아쉽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아쉽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쉽지 않은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관심, 교회에 관심, 예배에 관심, 말씀에 관심,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바빠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등한히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곳은 잠을 자지 않고도 관심을 집중합니다. 세상에 관심거리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TV, 유튜브 등 세상 매개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하는 시간의 절반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성령님께 관심이 있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예배에 관심이 있고, 기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 해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더 가까이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8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거리를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복 주시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설교자기도 .....설교자가 대표기도나 혹은 가족 전체가 통성기도하고 설교자가 마무리 기도..... 설교자

◎ 찬 송 ..... 301장 .....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실패 주시고 /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멜 때 /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주기도문 ..... 다 같이

♡ 예배 후,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지난 날 기뻐던 일, 어려웠던 덕담을 나눕니다.

2023

# 설날감사예배

설날예배를 통해 온 가족들과 일가친척이 모여서  
항상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 예배준비

1. 예배상을 준비하고 그 상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둘러 앉습니다.
2. 예배 전에 가족들이 한 해 기도제목을 예배상에 적어서 올려놓습니다.
3. 예배순서에 따라서 가족 중 신앙의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4. 예배순서 중 기도나 성경봉독을 가족들이 나누어 담당하면 좋습니다.
5. 예배 후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